

# 전북현대 주말 홈경기 특별노선 지속 운행

### 전주시, 평화동-한옥마을-시외·고속터미널-월드컵경기장 구간 9대 운영

2017 FIFA U-20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임을 입증한 전주시가 U-20월드컵 성공 개최 열기를 프로축구 K-리그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의 열기가 프로축구 K-리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19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 모비스 FC의 주말 홈경기를 관람하는 시민과 타 지역 축구팬을 위해 1994년 특별노선 총 9대를 운행한다.

특별노선 1994번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5분 간격으로 평화동-한옥마을-시외·고속터미널-월드컵경기장 구간을 운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호남제일문 시외간이정류소-시외·고속터미널-한옥마을-평화동 방면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성인기준 1,300원이다.

특별노선 외에도 경기 시작 전후로 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인 71번과 73번, 101번, 309번, 416번 총 5개 노선 22대에 운행될 예정이어서, 전북현대 축구팬들은 총 6개 노선 31대를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에 갈 수 있게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축구팬들이 1994년 특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노선 운행시간 및 노선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전 입장객 수송 후 대기 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계란 안내문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재개한 계란 안내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국산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어느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정부의 검사결과와 적합판정을 받고 판매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택시운수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가로수교통봉사대가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나선다.

지난 1994년 결성된 가로수봉사대는 유민생 대장을 비롯한 130명 정도의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봉사뿐 아니라 무의탁 소년소녀가장돕기 보육원·노년복지관 정기 방문 봉사활동 등 주변 소외된 계층에

계 파산한 손길을 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 4명도 특별노선 운행 홍보플래카드 배포 및 승차장소 안내 등 도움이 손길을 보낸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U-20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주말에 치러진 3경기에 1994년 특별노선 버스 총 46대를 운행, 총 3,700여 명의 축구팬을 수송했다. 전주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1994년 특별노선 운행 등 축구팬들의 원활한 축구 관람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전북현대의 주말 홈경기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FC전과 9월 9일 오후 7시 강원FC전, 9월 24일 오후 6시 대구FC전 등 총 3경기로, 시는 경기에 맞춰 특별노선 1994번을 운행한다.

/인재용 기자

# 덕진공원, 외국인 관광객 발길 줄이어

### 7월까지 전체 관광객 2만4876명 중 8.4%인 2106명 방문

전주시 관광명소인 전주 덕진공원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KATA(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덕진공원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만4,876명으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8.4%인 2,106명으로 집계됐다.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언어권별로 분류하면 영어권이 가장 많은 788명이며, 중국어권 580명, 일본어권 382명, 태국어와 말레이시아 등 기타 언어권은 3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연꽃 개화시기인 7월로, 군락을 이룬 연꽃과 함께 아간 음악분수대를 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패키지 또는 개별 관광을 통해 덕진공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8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 9개국 35명의 외국인 학생이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초청으로 전주를 찾아 덕진공원과 편백나무숲, 오송재를 탐방했다.

이에 앞서 7월 28일과 30일에는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200여명이 덕진공원을 찾아 연꽃을 감상

하고 덕진공원 일대를 돌아보는 생태문화체험을 했다.

또한 U-20 FIFA 월드컵이 열렸던 6월 4일에는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한 해외여행사 관계자 30여명이 덕진공원 음악분수대에서 펼쳐진 공연 '실록을 탐하다'를 보고 덕진공원 코스카 담긴 해외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등 덕진공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위해 지난 7월 덕진공원 일대 관광안내판을 정비했으며, 오는 9월초까지 덕진공원 내부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관광안내방향표지판 13개를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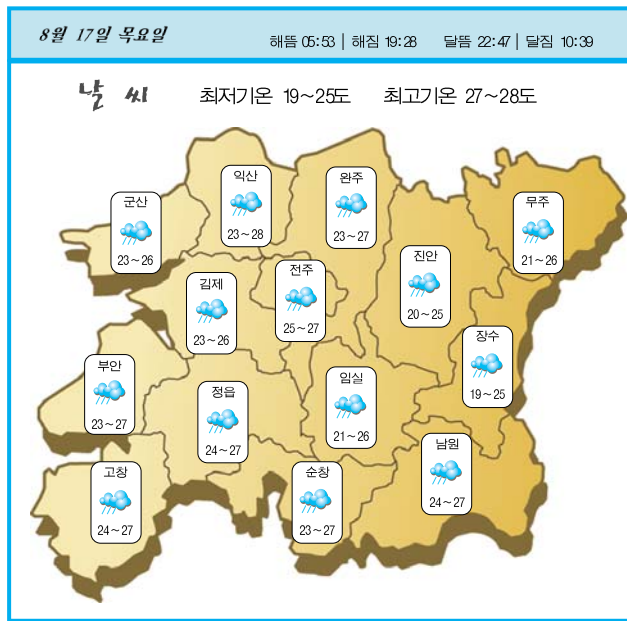
# 혁신도시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6000만원을 들여 혁신도시 내 연순공원에 420㎡부지를 활용해 농구장 1면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구장 조성이 완료되면, 혁신도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연순공원이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체력단련시설 및 놀이시설 29개, 화장실 등을 포함한 주민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풋살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실시착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까지 풋살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독서대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완벽한 사전준비로 오는 9월 1일~3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리에 치러내기로 했다.

시는 16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추진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의 주최,주관,협력기관 임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올해 독서대전의 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해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참여기관·단체별 중점추진사항과 기타 협조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제안한 기존사업과 차별화 전략과 출판계 참여 유도방안, 지역

서점과 지역출판계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변경 등을 점검했다.

박순종 부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주시가 올해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전국 최대의 독서문화축제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 남은 준비기간 동안 행사 홍보 및 붐 조성, 교통, 주차, 음식, 숙박 등 전주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230여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등 독서 문화와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로,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인재용 기자

# 대한민국 독서대전,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각종 공연과 행사 안내, 전 시,체험 부스 운영 지원 등을 맡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책을 사랑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www.1365.gnkr)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총 모집인원은 200여명이며, 참여한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

자원봉사자 선정은 오는 24일 독서

대전 홈페이지(www.jkorea2017.kr)를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봉사자들은 오는 28일에 진행되는 안전교육 및 행사관련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